

치 사

임진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일정에도 나눔 불사를 결산하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덕 스님들과 정관계를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복지 현장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손을 잡고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를 실천하는 불교 사회복지 실천가 여러분들과,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후원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겁게 논의되고 사회통합과 중생구제라는 종교 본연의 역할로써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양극화 현상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주도의 사회보장 제도가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사회적으로 편향된 계층의 인식을 개선하고 평등을 기치로 하는 불교적 가치관으로 자비실천운동을 지혜롭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전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복지와 봉사 실천운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사회를 불국정토라 하였듯이, 사부대중 모두가 부처님의 연기법과 중도에 입각한 불교사회복지와 봉사에 더욱 매진하여, 시대의 난관을 극복하고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루는 일에 더욱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불교사회복지 실천가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2012)년 12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 승